

『黃帝內經』의 曆法에 關한 研究

-『黃帝內經』의 曆法과 秦漢時代 曆法の 比較, 考察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仲炯 · 張祐彰 · 丁彰炫*

A Study on Calender(曆法) appeared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Dep.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Kim, Shin-Hyung · Jang, Woo-Chang · Jeong, Chang-Hyun

The astronomical understanding of the heavens in 『Hwangje-Naegyeong』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fields: the theory of cosmos, astronomy and calender. 『Hwangje-Naegyeong』 comprised the theory of cosmos, astronomy and calender established in the Han period.

Astronomy was to describe the heavenly world and to interpret its phenomena. Calendar was to make numerical representations of the observations of all kinds of celestial bodies and to give them number-mystical meanings. Theory of cosmos treated what ancient Chinese speculated on the structure of the heavens including the earth. These three fields developed independently. However, they can also be be combined into one tradition, the astronomical knowledge.

In the Han period that the astronomical knowledge grew from the mere accumulation of primitive knowledge to the established form. Throughout the Chinese history, the essential contents of astronomical knowledge including the theory of calendar, did not change much from what they were in Han period.

『Hwangje-Naegyeong』 use the lunisolar calendar(太陰太陽曆) and the Calendar in the late Han period(後漢四分曆). The use of the subdivisions of the seasons(24節氣) and the leap month(閏月) in 『Hwangje-Naegyeong』 means that it adopted the lunisolar calendar. Also 『Hwangje-Naegyeong』 adopted the Calendar in the late Han period by the four points: 『Hwangje-Naegyeong』 ruled the circulation of the universe(周天度數) at 365, 1/4 terms, use the The Twenty Eight Constellations in astronomical observation, view the heavenly body by the ecliptic(黃道) and mark down year by the Heavenly Streams & Earthly Branches(干支紀年).

The 24 solar terms is made by amount of Yang-Gi(陽氣) and samyum and samyang(三陰三陽) represent the amount of Yang-Gi in the earth.

Key Words : Calendar, the lunisolar calendar, the Calendar in the late Han period, the 24 solar terms

I. 序論

曆法은 천체에서 일어나는 天文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天文이 하늘의 세계를 묘사하고 천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그 의미를 해석 하는데 비하여, 曆法은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천체들의 움직임을 數量的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曆法에서는 해와 달의 운동을 측정하여 날짜를 정하는데, 曆法이 달력만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 안에는 해와 달의 운행만을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東洋의 曆法에서는 달력을 만드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行星의 운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다. 東洋의 曆法에는 이미 기원전부터 오늘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라고 부르는 辰星, 太白, 熒惑, 歲星, 填星 등 5개의 五行星과 28宿, 北極星, 北斗七星에 대해서 정밀한 관측과 해석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東洋에서 曆法을 만들 때 단순히 달력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天體들의 모든 운행모습을 완전하게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¹⁾. 東洋天文學에서 五行星과 二十八宿 등의 운동을 자세히 다루어 실제 천체의 모습을 완전하게 표현하고자 한 까닭은, 日月五星을 포함한 天文現象이 실제 人間生活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天人相應論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여겨진다. 즉, 西洋의 天文學이 曆法에 필요한 日月五星의 운동을 위주로 발전된데 비하여, 東洋의 天文學은 天人相應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달력을 만드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天文現象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曆法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간의 마디를 측정하는데, 동양에서는 시간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한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순환한다고 생각하였다. 『黃帝內經』에서도 시간의 단위를 四季節, 二十四節氣, 七十二候, 三百六十五日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각 계절과 절기에 따라서 나타

나는 질병과 이에 대한 치료법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運氣學에서는 五運과 六氣로 드러나는 干支의 次序에 따라서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여 질병을 예방하는데 이용하였다. 따라서 曆法에 관한 내용과 曆에서 구분하는 節氣의 변화는 運氣學에서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며, 실제 임상에서도 曆에서의 절기와 기후의 구분을 파악하는 것이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內經』에 나타나 있는 曆法의 내용을 통해서 『黃帝內經』의 성립시기를 조사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論文에서는 『黃帝內經』에 나타나 있는 曆法의 내용을 살펴보고 『黃帝內經』의 曆法의 특징과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曆法은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헤아리는 방법을 말한다. 曆法은 천체의 주기적 운동을 관찰하여 만들어 졌는데, 예컨대 지구의 자전은 1일을 만들고, 달의 삭망으로부터 한 달을 추산하며, 지구의 공전으로부터 1년을 기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전통역법의 특징은 太陰太陽曆이며 天體曆(1년간에 걸쳐 천체관측에 필요한 태양, 달, 행성 및 주요 항성의 천구상의 위치를 비롯하여 관측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망라된 曆書)이라는 점인데, 중국역에서 이러한 성격이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것은 太初曆 이후의 일이다. 太初曆 이전에도 古六曆이라고 부르는 黃帝曆, 顓頊曆, 夏曆, 殷曆, 周曆, 魯曆 등 최소한 6가지 이상의 曆이 있었으나, 이 때 사용되었던 曆은 비교적 단순한 내용으로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갖춘 曆法은 아니었다.²⁾

漢代 이전 즉, 三統曆 이전의 曆法은 달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해와 달의 운행만을 고려한 단순한 정도의 ‘달력 만들기’ 수준이었으며,³⁾ 모든 천체운동

* 교신저자: 丁彰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961-0337. jeongch@khu.ac.kr

1) 李文揆. 陰曆과 陽曆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 科學東亞. 1998(1). 54-59.

2) 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대한 天文學的 理解. 理學博士學位論文. 1997. p.176.

3) 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대한 天文學的 理解. 理

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 중국 曆法의 형태는 三統曆 이후에나 갖추어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黃帝內經』의 저작시기로 여겨지는 秦漢代의 曆法을 살펴보고, 『內經』에 나타나 있는 天文, 曆法의 특징과 太陰太陽曆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秦漢代의 曆法

曆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체의 관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천문의 관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B.C. 2500년경에 黃帝가 “用干戈, 作舟車, 造曆算, 製音律”이란 기록이 『童蒙先習』에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고대에도 이미 간단한 曆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春秋時代에는 圭表를 써서 해에 의한 막대의 그림자 길이로 冬至時刻를 측정하였고, 28宿를 사용하여 달의 운동을 관측하기도 하였다. 또한 春秋戰國時代 사이에는 五行星의 運行을 관측하고 恒星의 위치를 측정하였다.⁴⁾

『黃帝內經』이 저술된 시기로 추정되는 戰國에서 秦漢時代의 曆法은 顛頊曆으로부터 시작되어 太初曆을 거쳐 三統曆과 後漢 四分曆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顛頊曆

古六曆⁵⁾의 하나로 秦의 통일 후에 사용되어 漢武

學博士學位論文. 1997. p.175: 三統曆 이전의 曆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曆術甲子篇’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달력을 만드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해와 달의 운행만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三統曆에서는 달력을 만드는 일과 별 관계가 없는 五星의 운행도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 4)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p.18-19.
- 5) 戰國시대와 秦代에는 黃帝曆, 顛頊曆, 夏曆, 殷曆, 周曆, 魯曆의 曆法이 있었는데 이를 古六曆이라 한다. 이 6가지의 曆法은 모두 365와 1/4일을 1회귀년으로 정하였기에 “四分曆”이라고도 한다. 四分曆은 후한 원화 2년에 실시한 曆法으로, 古六曆도 四分曆을 사용하여 이를 구분하기 위해 曆書에는 古六曆을 “古四分曆”이라 칭하

帝 때 太初曆을 제정하기 전까지 顛頊曆을 사용하였다. 顛頊曆은 1회歸年을 365와 1/4로, 1朔望月을 29와 449/940일로 하였으며, 19년에 7개의 閏月을 두었고, 立春을 一年 節氣의 시작점으로 하였다.⁶⁾

2) 太初曆

漢武帝가 太初 1년(BC 104)에 실시한 曆法으로 1회歸年을 365와 385/1539일로, 1朔望月을 29와 43/81일로 하였다. 『漢書律曆志』에 의하면 秦의 顛頊曆을 太初曆으로 개정하였는데, 太初曆의 특징은 10월을 歲首로 하였던 것을 正月歲首로 바꾼 것, 冬至를 11월로 고정시킨 것, 中氣가 있는 달을 윤달로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⁷⁾

3) 三統曆

前漢 經學家이자 天文學者인 劉歆이 太初曆을 수정해서 만든 것으로 기본적으로 太初曆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다. 三統曆은 1회歸年을 365와 385/1539일로, 1달을 29와 43/81일로 정하고 있으며, 太初曆의 天文常數를 『周易』의 이론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⁸⁾

三統曆은 해와 달의 운행과 더불어 五行星의 운행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三統曆에서는 五行星의 운행에 대한 설명 역시 형이상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⁹⁾ 三統曆은 天體曆으로서의

고, 四分曆을 “後漢四分曆”이라 칭하였다

- 6)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p.19-20.
- 7)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一策. 대만. 明文書局. 1993. pp.204-205.
- 8)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21.
- 9) 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대한 天文學的 理解. 理學博士學位論文. 1997. pp.181-186: 三統曆에 대하여『漢書』 「律曆志」에서는 “太極運三辰五星於上 而元氣轉三統五行於下. 其於人 皇極統三德五事. 故三辰之合於三統也 …… 五星之合於五行 …… 三辰五星而相經緯也”라 하여 해-天統, 달-地統, 斗-人統의 三辰과 三統의 연결 및 水-辰星, 火-熒惑, 金-太白, 木-歲星, 土-填星의 五行과 五星을 연관지었다. 또한 “天以一生水 天以二生火 天以三生木 天以四生金 天以五生土. 五勝相乘 以生小周 以乘乾坤之策 而成大周”라 하여 五行이 서로 相勝하듯이 이 수를 각각 곱하면 각 행성의 작은 주기(小周; 회합주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이것에 乾坤의 策數를 곱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중국 최초의 曆法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4) 四分曆

四分曆은 太初曆과 三統曆을 이어 만들어진 것으로, 後漢 四分曆은 1회귀년을 365와 1/4로 하고 1삭망월을 29와 499/940일로, 그리고 19년에 7개의 閏월을 두었다. 四分曆도 三統曆의 기본적 내용을 모두 이어받고 있으나, 黃道度數로 해와 달의 위치를 관측하였고, 五行星의 운동과 모이는 시기, 24節氣에 따른 태양의 위치 등에 관해 보다 정밀해진 천문관측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¹¹⁾¹²⁾

四分曆은 漢이 망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이후 삼국시대 蜀과 魏에서도 사용되었다.

2. 『黃帝內經』의 曆法에 대한 考察

『黃帝內經』의 曆法은 ‘曆法의 기본주기를 무엇에 두었는가’ 하는 太陽曆, 太陰曆, 太陰太陽曆에 대한 문제와 진한시대의 시대상황에 따른 顛頊曆, 太初曆,

三統曆, 四分曆 중 어떠한 曆法을 취하였는가 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曆法의 기본주기를 태양의 일주운동으로 맞춘 것이 太陽曆이며, 기본주기를 달의 朔望에 맞추었을 때를 太陰曆이라 하며, 태음과 태양의 두 천체의 운동을 함께 고려한 것을 太陰太陽曆이라 한다. 중국에서 전국시대 이후의 曆法은 달과 태양의 천체운행을 모두 고려한 太陰太陽曆을 사용하였는데, 각 시대의 曆法은 1회귀년을 어떻게 정하였는가와 曆法이 가진 특징에 따라 顛頊曆, 太初曆, 三統曆, 四分曆 등으로 바뀌어졌다.

여기서는 『黃帝內經』의 曆法이 각 시대의 曆法 중 어떠한 특징을 주로 나타내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黃帝內經』의 편찬시기가 戰國에서 秦漢 시기임을 고려할 때 『黃帝內經』의 曆法도 이시기의 曆法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戰國에서 秦漢 시기에는 顛頊曆, 太初曆, 三統曆, 四分曆 등이 제정되었는데, 이로부터 『黃帝內經』의 曆法과 천문관측에 대한 내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1) 『黃帝內經』의 周天度數

『黃帝內經』은 천체의 周天度數를 365와 1/4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黃帝內經』의 周天度數는 後漢 四分曆의 내용과 일치한다. 周天의 度數는 천체공간에서 태양이 운행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365와 1/4도’는 戰國時代に 만들어진 四分曆의 度數이며, 그것이 1/4이라는 점 때문에 四分曆으로 불려진다. 太初曆 이후 새로운 曆은 周天度數를 새로운 수치로 채택하였는데, 四分曆을 채용한 曆法은 戰國時代의 四分曆과 後漢의 四分曆이 유일하다.¹³⁾

2) 二十八宿를 이용한 日月의 觀測

『黃帝內經』에서 日月을 관측할 때는 “星辰을 관찰하는 까닭은 해와 달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¹⁴⁾라 하여 日月의 운동을 28宿의 항성의 위치를

하면 행성의 큰 주기(大周; 歲數)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천문상수를 주역의 이론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10) 李文揆. 古代 中國人の 하늘에 대한 天文學的 理解. 理學博士學位論文, 1997. pp.184-186.

11) 李殷晟. 曆法의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22.

12) 李文揆. 古代 中國人の 하늘에 대한 天文學的 理解. 理學博士學位論文, 1997. pp.186-189: 後漢 四分曆과 三統曆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四分曆은 冬至점의 위치를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牽牛 初度에서 斗宿 21度 1/4 지점으로 옮겼다. 冬至점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물론 歲差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冬至점의 위치를 바꾸었다는 것은 곧, 실제 해의 위치를 관측하여 그 결과를 曆法에 반영시켰음을 뜻한다. ② 四分曆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와 달의 운행과 위치를 黃道度數를 사용해서 계산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는 赤道좌표를 사용했는데 四分曆에서 처음으로 黃道좌표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두 좌표사이의 차이를 曆法에 반영시켰다. ③ 또한 四分曆은 28宿 距星 사이의 赤道度數와 黃道度數를 비롯하여 24절기의 해의 위치 및 中星과 漏刻과 表의 그림자의 길이 등 曆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실제 관측결과를 이용하여 정하였다. 이밖에 四分曆에서는 처음으로 沒日과 滅日을 추산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3) 야마다 게이 지 저. 김석근 譯. 朱子の 自然學. 서울. 통나무. 1994. pp.208-209.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

기준으로 하여 관측하였다. 曆法의 기본요소인 태양과 달의 운행을 28宿의 항성을 기준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太初曆 以後부터 찾아볼 수 있다. 太初曆 이전의 古六曆에서는 28宿를 직접 曆法에 이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黃帝內經』의 曆法은 적어도 古六曆 이후 曆法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黃道를 이용한 天文觀測

또한 “八方을 관찰하는 까닭은 八風의 虛邪가 때에 맞게 이르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며, 사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까닭은 봄, 가을, 겨울, 여름의 기운이 지닌 것을 변별하여 때에 맞게 조섭하기 위한 것이다.”¹⁵⁾라 하여 『黃帝內經』에서는 黃道를 이용하여 천문을 관측하고자 하였다.

4) 干支紀年

『六微旨大論』에서 “天氣始于甲, 地氣始于子, 子甲相合, 名曰歲立”¹⁶⁾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干支를 결합하여 紀年을 하는 干支紀年法을 말한다.

干支를 가지고 年月日時를 기록하는 방법을 干支紀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干支紀年, 干支紀月, 干支紀日, 干支紀時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干支로 날을 헤아리는 干支紀日法이 먼저 사용되었는데, 『春秋』에서 干支로 日辰을 기록한 것이 최초의 문헌이다. 干支로 紀月을 한 것은 B.C104년 漢武帝 때 太初曆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干支紀年은 東漢 章帝 元和二年(A.D. 85년)에 四分曆을 반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西漢 初年の 『淮南子』 등의 문헌을 살펴보면, 干支紀年은 四分曆이 반포되기 전에 西漢 初期에 이미 민간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을. 1985. p.100: 星辰者, 所以制日月之行也.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00: 八正者, 所以候八風之虛邪, 以時至者也. 四時者, 所以分春夏秋冬之氣所在, 以時調之也.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43.

17) 尹暢烈. 運氣學說의 起源에 대한 研究. 大韓原典醫學史會誌. 1999. 12(1): 60-61.

『黃帝內經』에서는 干支紀日과 干支紀年의 기록이 나타나 있다. 運氣篇에서 干支紀年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黃帝內經』의 運氣篇의 曆法은 後漢의 四分曆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黃帝內經』의 周天度數와 二十八宿를 이용하여 日月을 관측한 점, 黃道를 통해 천문을 관측한 점, 그리고 運氣篇의 干支紀年法을 살펴볼 때, 『黃帝內經』의 曆法은 後漢 四分曆에 해당된다.

3. 24節氣에 대한 考察

1) 『黃帝內經』의 節氣와 氣候 구분

동양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宇宙를 구성하며,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직선적으로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순환한다고 보았다. 시간을 구분하면 四季節, 二十四節氣, 七十二候, 三百六十五日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六節藏象論』에서는 “五日謂之候, 三候爲之氣, 六氣爲之時, 四時爲之歲.”¹⁸⁾라고 하여 5일을 1候, 3候를 1節氣, 6節氣를 하나의 계절로 하고 四時가 一歲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¹⁹⁾

四季節은 春夏秋冬으로 이루어지고, 기후는 二十四節氣와 七十二候로 나누어진다. 一年 중에서 음양오행의 氣에 큰 변동이 있는 것이 四時이고, 四時 중에서 陰陽의 변화에 비교적 적은 변동이 있는 것을 ‘氣’라고 부른다. ‘氣’는 매번 15일을 주기로 한번씩 변하는데, 이것이 12개월의 ‘節氣’와 ‘中氣’가 된다. 또한 매 15일의 一氣 중에 陰陽의 기운이 더욱 작은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候’라고 한다. ‘候’를 『說問』에서는 “伺望也”²⁰⁾라고 하여 살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節氣와 중기로 된 二十四節氣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후변동을 나타내준다. 候는 五日마다 변하기 때문에 五日를 一候라 하며, 一紀인 十五日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35.

19) 이에 따르면 1年=四季, 1季=3月, 1月=2氣, 1氣=3候, 1候=5日, 1日=4辰, 1辰=3時로 나누어진다.

20) 許慎 著.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374.

속에 三候가 있으니 一年 중에는 모두 七十二候가 있게 된다.²¹⁾

2) 24節氣의 由來

24節氣는 태양의 黃道 上의 서로 다른 위치에 근거한 것으로, 고대에는 黃道 부근의 하늘을 등분하여 12次를 만들고, 태양이 운행하여 어떤 次에 이르렀을 때 어떤 節氣가 된다고 보았다. 24節氣는 太陽曆을 기준으로 하여,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다. 太陰曆은 달의 운동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므로, 달의 변화는 잘 나타내 주지만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계절의 변화는 알 수 없었다. 즉,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운동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음력날짜와 계절의 변화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太陰太陽曆에서는 태양의 운동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표시하여 주는 24節氣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²²⁾

고대에는 일찍부터 二分(春分, 秋分)과 二至(冬至, 夏至)의 4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尙書堯傳』에는 春分을 ‘日中’, 秋分을 ‘宵中’이라 하였고, 『呂氏春秋』에는 春分, 秋分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하여 ‘日夜分’이라 하였다. 『堯傳』에는 夏至를 ‘日永’, 冬至를 ‘日短’이라 하였으며, 夏至는 낮이 가장 길고 冬至는 낮이 가장 짧기 때문에 『呂氏春秋』는 이를 구별하여 ‘日長至’, ‘日短至’라 불렀다.

戰國末期에 나온 『呂氏春秋·十二月紀』에서는 孟春, 仲春, 孟夏, 仲夏, 孟秋, 仲秋, 孟冬, 仲冬의 8개월에 立春, 日夜分, 立夏, 日長至, 立秋, 日夜分, 立冬, 日短至의 8節을 배합하였다. 후세와 같은 완전한 24節氣의 명칭은 『淮南子·天文訓』에서 보이며, 현재 통용하는 二十四節氣의 명칭 및 차서와 완전히 일치한다.²³⁾ 『淮南子』에서는 “日行一度, 十五日爲一節, 以生二十四時之變.”²⁴⁾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二十四時는

二十四節氣를 말한다. 『淮南子』에서는 二十四節氣를 “冬至, 小寒, 大寒,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清明, 穀雨, 立夏,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大暑, 立秋,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 立冬, 小雪, 大雪”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24節氣와 동일하다.²⁵⁾ 一年을 二十四氣로 나눈 것은 대체로 前漢 初年 이후 『淮南子』가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추측된다. 『漢書律曆志』에 실린 二十四氣의 차서와 『淮南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漢書律曆志』에서는 驚蟄을 正月中, 雨水를 二月節, 穀雨를 三月節, 清明을 三月中으로 기록하고 있다. 『漢書律曆志』의 기록은 劉歆의 三統曆에 근거한 것인데, 劉歆이 雨水와 驚蟄 二氣의 차서를 바꾸고 清明, 穀雨 二氣의 次序를 바꾸었으며, 다른 節氣의 차서를 바꾸지 않은 것은 『禮記月令』의 기록을 따른 것인데, 이는 劉歆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曆法은 아니었다.²⁶⁾

정월 : 立春, 雨水
 2월 : 驚蟄, 春分
 3월 : 清明, 穀雨
 4월 : 立夏, 小滿
 5월 : 芒種, 夏至
 6월 : 小暑, 大暑
 7월 : 立秋, 處暑
 8월 : 白露, 秋分
 9월 : 寒露, 霜降
 10월 : 立冬, 小雪
 11월 : 大雪, 冬至
 12월 : 小寒, 大寒²⁷⁾

『黃帝內經·六節藏象論』에서는 二十四節氣를 언급하고 있는데, 平氣法에 따른 二十四節氣²⁸⁾로 三陰三

卷第3 p.10.

25) 李烈炎. 時空學說史. 北京. 湖北人民出版社. 1999. pp.151-152.

26) 尹暢烈. 曆의 成立에 관한 考察-醫哲學. 大田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1998. pp.160-161.

27) 24節氣와 음력달의 배합은 고정된 것은 아니다. 節氣는 태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朔望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며, 여기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술하였다.

28) 李烈炎. 時空學說史. 北京. 湖北人民出版社. 1999. pp.150-153: 24節氣를 정하는 방법은 平氣法과 定氣法

21) 趙載光. 中國古代 自然哲學與科學思想. 北京. 湖南人民出版社. 1998. p.142.

22) 李殷晟. 曆法의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p.124-127.

23) 尹暢烈. 曆의 成立에 관한 考察-醫哲學. 大田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1998. pp.160-161.

24) 服部宇之吉 校訂. 漢文大系淮南子. 東京. 富山房. 1977.

陰, 少陰, 太陰의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三陰三陽은 陽氣가 차오를 때에 겹으로 드러내는 변화상을 나타내므로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의 순서를 따른다.

즉, 二十四節氣는 黃道상에서 태양의 공전에 따른 陽氣의 다소에 따라 정한 것이며, 三陰三陽은 지상에 陽氣가 드러날 때의 변화상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黃帝內經』의 太陰太陽曆

1) 太陰太陽曆에 대한 考察

고대로부터 曆法은 太陽曆과 太陰曆, 太陰太陽曆이 전해져 왔는데, 태양의 주기적 운동으로부터 太陽曆이 만들어지고, 달의 주기운동에서 太陰曆이 만들어졌다. 즉, 曆法의 기본주기를 달의 朔望에 두었을 때 이를 太陰曆이라 하고, 태양의 공전에 두었을 때는 太陽曆이라 하며, 달과 태양의 두 천체의 운동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를 太陰太陽曆이라 한다. 고대로부터 太陰曆이 일찍부터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달의 삭망주기가 4계절의 순환주기보다 더 관측이 쉽고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태양의 운동에 비해 달의 삭망은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일찍부터 太陰曆이 만들어 졌지만, 달의 삭망에 기준한 太陰曆은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온대지방에서 농경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曆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太陰曆 이후로 태양의 공전주기를 고려한 太陽曆이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에 이 둘을 보완한 太陰太陽曆이 나타나게 되었다.³⁵⁾

太陰太陽曆은 달에 의한 朔望月과 태양에 의한 回歸年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曆法의 근본이 된다. 太陰太陽曆은 태양의 黃道상의 운행주기를 기준으로, 24節氣를 정해두어 역일과 계절이 일치하지 않는 太陰曆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하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을 曆法에서는 春分, 夏至, 秋

分, 冬至 등의 24節氣로 표시하였다. 양력에서는 해의 운행으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24절기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太陰曆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는 달의 운동을 보고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음력 날짜만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太陰曆에 24절기를 도입한 것이다.³⁶⁾

2) 『黃帝內經』에 나타난 太陰太陽曆

『黃帝內經』의 曆法이 太陰太陽曆의인 요소를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二十四節氣의 구별이 뚜렷하게 되어 있는가 (太陽曆의 절기구분)

둘째, 윤달을 놓고 계절을 조절하였는가(太陰太陽曆의 윤달의 설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히 윤달³⁷⁾로 절기와 날짜를 조정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太陰太陽曆을 결정하는 중요한 점이다.

『黃帝內經』에서는 月建法과 윤달을 이용하여, 그 해의 절기를 정하고 이를 교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月建法

月建法이란 北斗七星의 斗柄이 가리키는 十二支의 방위에 따라 그 시기의 달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³⁸⁾ 月建法에 대한 기록은 春秋時代에 “斗柄東

36)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p.124-126.

37) 윤달은 太陰曆에서 날짜가 계절과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을 주기로 끼워 넣은 달을 말한다. 1년은 태양이 春分점을 출발하여 천구를 일주하고 다시 春分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주기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평균하면 365.2422일이다. 또한 1삭망월은 어느 그믐에서 다음 그믐까지의 길이로 29.530589일이 된다. 1朔望月은 29.53059일이고, 1태양년은 365.2422일이므로 음력 12달은 1태양년보다 약 11일이 짧다. 그러므로 3년에 한 달, 또는 8년에 석 달의 윤달을 넣어 절기와 날짜를 맞추도록 하였다.

38)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圖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30: 一歲四時之候, 皆統于十二辰. 十二辰者, 以斗綱所指之地, 卽節氣所在之處也. 正月指寅, 二月指卯, 三月指辰, 四月指巳, 五月指午, 六月指

35)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13.

指, 天下皆春, 斗柄南指, 天下皆夏, 斗柄西指, 天下皆秋, 斗柄北指, 天下皆冬.”이라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 관측했을 때 斗柄이 가리키는 방향이 四時에 따라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매일 저녁 무렵 해가 지자마자 北斗七星의 斗柄이 가리키는 방향을 살펴보면 四時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동서남북의 순서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그 방향의 연장선이 지평선과 만나는 지점의 방위에 따라서 月建³⁹⁾이 정해진다. 즉, 冬至에는 해가 지고 난 무렵(昏)에 斗柄이 북쪽의 子방향을 가리키고, 春分에는 같은 시각에 斗柄이 동쪽의 卯방향을 가리키고, 夏至에는 같은 시각에 斗柄이 남쪽의 午방향을 가리키고, 秋分에는 서쪽의 酉방향을 가리키므로 달력이 없다 하더라도 천문관측을 통해 쉽게 달을 헤아릴 수 있었다.⁴⁰⁾

(2) 윤달의 설정

중국에서는 圭表 上에 나타난 그림자의 길이로 冬至와 夏至를 정하였는데,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짓날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동짓날까지를 一太陽年, 즉 一歲로 정하였다. 그런데, 一年을 12개월로 정했을 때 실제 一歲의 길이와 약 10日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 3년에 한번 꼴로 윤달을 넣어 보정을 해주어야 했다.(예컨대, 甲骨文에 나타난 殷代의 曆法을 보면 윤달을 넣어 歲首를 조정할 때에

未, 七月指申, 八月指酉, 九月指戌, 十月指亥, 十一月指子, 十二月指丑, 謂之月建. 天之元氣, 無形可觀, 觀斗建之辰, 即可知矣. 斗有七星, 第一曰魁, 第五曰衡, 第七曰杓, 此三星謂之斗綱. 假如正月建寅, 昏則杓指寅, 夜半衡指寅, 平旦魁指寅, 餘月傍此.

39) 斗建은 北斗七星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용해서 계절이나 방위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런 방법은 대략 춘추전국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天官書』에서는 北斗七星의 斗柄(杓)은 동쪽에 있는 蒼龍의 뺨에 이어져 있고, 가운데부분(衡)은 南斗에 대면하고 있으며, 몸체부분(魁)은 서쪽에 있는 參宿의 머리쪽에 이어져 있는데, 해질 무렵 斗建은 杓으로써 華山으로부터 서남쪽을 가리키고, 밤중의 斗建은 衡으로써 黃河와 濟水 사이를 가리키며, 새벽녘의 斗建은 魁으로써 東海와 泰山 등 동북쪽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40) 白裕相. 天干과 地支의 起源에 대한 考察. 月刊醫林. 2004(6). 83.

항상 旬(10日)을 단위로 하여 교정하였다) 그러나, 一太陽年의 길이와 一太陰年의 길이 차가 10.8751日로서 정확히 10일이 아니므로 또 오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三旬의 윤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歲首를 조정했고, 혹은 四旬이나 五旬의 달을 두기도 했으며 十日의 旬보다 적은 小旬을 두어 차이를 조정하기도 했다. 후대에 와서 二十四節氣가 정확히 확정된 이후로는 지금의 음력과 마찬가지로 中氣의 有無를 기준으로 하여 수시로 윤달을 삽입함으로써,⁴¹⁾ 一太陽年의 길이에 맞추어 나갔다.⁴²⁾

『黃帝內經』에서 節氣를 교정하고, 윤달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六節藏象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六節藏象論」에서는 “기수가 남으면 윤달로 채운다”,⁴³⁾ “일년의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을 정하고 정오에 圭表로 해의 그림자를 재어서 절기를 교정한다.”⁴⁴⁾라고 하여, 太陰太陽曆의 특징인 윤달을 사용하여 節氣를 교정했음을 알 수 있다.⁴⁵⁾

“立端於始, 表正於中, 推餘於終, 而天度畢矣.”라고 하여 圭表를 사용하여 節氣를 교정한 것은 『春秋左

41) 24節氣는 태양이 움직이는 길(黃道)을 스물 네 등분하여, 태양의 위치에 따라 節氣의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한다. 24節氣는 12節氣와 12中氣로 이루어져 있는데, 윤달은 節氣에 상관없이 한 달에 들어있는 中氣에 따라 음력달의 이름을 정하고 있다. 각 節氣와 中氣의 간격이 대략 15일 정도이다 보니, 음력의 어떤 달에는 節氣만 있고 中氣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中氣만 있고 節氣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中氣가 없는 달을 그 앞달의 이름을 따서 윤달로 하는데, 윤달인 경우에는 中氣가 들어있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中氣가 없는 곳에 윤달을 둔다는 의미로 無中置閏法이라고 명칭 하였다.

42) 白裕相. 天干과 地支의 起源에 대한 考察. 月刊醫林. 2004(6). p.78.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35: 積氣餘而盈閏.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35: 立端於始, 表正於中, 推餘於終, 而天度畢矣.

45) 『素問六微旨大論』에서도 “所謂步者, 六十度而有奇. 故二十四步, 積盈, 百刻而成日也.”(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42.)라고 하여 계절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4년마다 1일의 윤일을 제정하였다.

氏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⁴⁶⁾ 王氷은 이에 대하여 “端은 첫머리이다. 始는 처음이다. 表는 드러난다는 말이다. 正은 斗建을 말한다. 推는 退位이다. 初節之日에 首氣를 세우고, 月半之辰에 斗建을 보이고, 相望之後에 餘潤을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윤달의 전에는 氣가 달에 미치지 못하고, 윤달의 뒤에는 달이 氣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달에는 節氣와 中氣가 있지만 윤달에는 節氣와 中氣가 없는데, 비록 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다른 절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曆에 어떤 候는 윤 무순 달 節, 윤 무순 달 中 이라는 말이 없으니, 推終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立端於始, 表正於中, 推餘於終, 而天度畢矣.’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날짜를 추산하여 윤달을 만들었다. 그래서 天도가 끝날 수 있다.”⁴⁷⁾라고 하였다.

『黃帝內經』에서 節氣를 교정하고 윤달을 사용한 기록은 「六節藏象論」외에도 運氣篇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黃帝內經』은 太陰太陽曆을 기본 曆法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Ⅲ. 結 論

1. 『黃帝內經』의 曆法은 ‘曆法의 기본주기를 무엇에 두었는가’ 하는 太陽曆, 太陰曆, 太陽曆에 대한 문제와 진한시대의 시대상황에 따른 顛頊曆, 太初曆,

三統曆, 四分曆 중 어떠한 曆法을 취하였는가 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曆法의 기본주기를 태양의 일주운동으로 맞춘 것이 太陽曆이며, 기본주기를 달의 朔望에 맞추었을 때를 太陰曆이라 하며, 태음과 태양의 두 천체의 운동을 함께 고려한 것을 太陰太陽曆이라 한다. 중국에서 전국시대 이후의 曆法은 달과 태양의 천체운행을 모두 고려한 太陰太陽曆을 사용하였는데, 각 시대의 曆法은 1회귀년을 어떻게 정하였는가와 曆法이 가진 특징에 따라 顛頊曆, 太初曆, 三統曆, 四分曆 등으로 구분된다.

『黃帝內經』은 後漢 四分曆을 사용하고 있는데, 天體의 周天度數를 365와 1/4度로 규정한 점, 28宿를 직접 曆法에 이용하고, 黃道를 이용하여 天文을 관측한 점과 干支紀年法을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黃帝內經』의 曆法은 後漢 四分曆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黃帝內經』은 二十四節氣를 구별하고(太陽曆의 절기 구분), 윤달을 사용하여 계절을 조절(太陰太陽曆의 윤달의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태음태양력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二十四節氣는 黃道상에서 태양의 공전에 따른 陽氣의 多少에 따라 정한 것이며, 三陰三陽은 지상에 陽氣가 드러날 때의 변화상을 표현하고 있다. 六氣의 변화는 陰氣와 陽氣의 消長變化를 나타내면서 6步에 따라 각 절기에 배속되는데, 六氣는 三陰三陽과 결합하여 자연의 기후변화를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陰陽氣의 多少를 표현하고 있다. 二十四節氣에 따른 三陰三陽의 次序는 지상에서 陽氣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三陰三陽은 六氣와 결합하여 標本의 관계를 갖는데, 三陰三陽이 標로써 六氣가 本으로 작용한다. 陽氣가 차오르는 순서에 따르면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의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三陰三陽은 陽氣가 차오를 때에 걸으므로 드러내는 변화상을 나타내므로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의 순서를 따른다.

參考文獻

46) 『春秋左氏傳』에는 “先王之正時也, 履端於始, 舉正於中, 歸餘於終.”(楊伯峻 편저. 春秋左氏注. 北京. 中華書局. 2000. p.510.)이라 하였다. ‘履端於始’는 한해의 처음을 올바르게 정함을 말하고, ‘舉正於中’은 매월에 드는 계절, 즉 中氣를 매월 중에 알맞게 넣음을 말함, ‘歸餘於終’은 한해를 열두달로 나누고, 남은 일수를 모아, 그것이 한 달의 일수가 되면 윤달을 둠을 말한다.

47)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현토해석. 黃帝內經素問王氷注.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195-196: 端首也, 始初也, 表彰示也, 正斗建也, 中半月也, 推退位也. 言立首氣於初節之日, 示斗建於月半之辰, 退餘閏於相望之後. 是以閏之前則氣不及月, 閏之後則月不及氣. 故常月之制 建初立中, 閏月之紀 無初無中, 縱曆有之, 皆他節氣也. 故曆無云, 某候, 閏某月節, 閏某月中也, 推終之義 斷可知乎也. 故曰立端於始, 表正於中, 推餘於終也. 由斯, 推日成閏, 故能令度畢焉.

〈논문〉

1. 尹暢烈. 運氣學說의 起源에 對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1).
2. 尹暢烈. 曆의 成立에 關한 考察-醫哲學. 大田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1998.
3. 尹暢烈. 三陰三陽에 關한 研究-醫哲學. 大田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1998.
4. 丁彰炫. 中醫學與周易의 科學思想研究-醫易學的 時空觀. 北京中醫藥大學. 2001.
5. 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對한 天文學的 理解. 理學博士學位論文. 1997.
6. 李文揆. 陰曆과 陽曆 어느 것이 더 科學적인가?. 科學東亞. 1998(1).

〈단행본〉

1. 李殷晟. 曆法의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2.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一策. 대만. 明文書局. 1993.
3. 야마다 게이 지 著. 김석근 譯. 朱子의 自然學. 서울. 통나무. 1994.
4. 趙載光. 中國古代 自然哲學與科學思想. 北京. 湖南人民出版社. 1998.
5. 李烈炎. 時空學說史. 北京. 湖北人民出版社. 1999.
6.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7. 白裕相. 天干과 地支의 起源에 對한 考察. 月刊 醫林. 2004(6).
8.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현토해석. 黃帝內經素問王冰注. 대전. 주민출판사. 2003.
9.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10.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11.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12.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圖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3.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